

## 만성적인 알코올섭취자의 혈청 지질상태에 관한 연구

양경미\*, 김정미, 서정숙. 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A Study on the Lipid Contents of Alcoholics

Kyung Mi Yang, Jung Mi Kim, Jung Sook Seo,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Yeungnam University, Kyongsan, Korea

알코올 섭취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 중에서 만성적인 알코올의 섭취가 체내 영양소 대사에 미치는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관상심장질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지질대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혈중 지질성분의 함량을 측정함으로써 혈관계질환 발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로는 대구·경북지역의 알코올환자 수용시설에 입원한 남자 환자들 중 다른 질병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진단된 50명을 선정하였으며, 1998년 9월 1일부터 1998년 12월 10일 까지 채혈 및 영양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으로서는 경북지역의 회사원들로서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 동일 연령층의 남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질성분 분석을 위하여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날 채혈을 하고 혈청을 분리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환자가 1주일 정도 입원하여 안정을 취한 다음, 과거의 생활습관과 식생활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의 알코올 섭취량이 하루 평균 9.4g인데 비하여 알코올군은 922.8g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은 대조군이 하루 평균 6.1개피인데 비해 알코올군은 13.3개피로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점수법으로 계산한 식행동점수에 있어서는 대조군의 경우 19.0점이었고 알코올군은 16.6점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혈청중의 중성지방 함량은 알코올군이 171mg/dl로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p < 0.001$ ).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알코올군에서 감소되는 경향이었으나( $p < 0.05$ ), HDL-콜레스테롤의 함량은 알코올군이 30.1mg/dl로서 대조군의 53.1mg/dl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p < 0.001$ ). LDL-콜레스테롤의 함량은 두 군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동맥경화지수에 있어서는 알코올군이 7.02, 대조군이 4.16으로서 알코올군에서 동맥경화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 일반적으로 알코올의 섭취가 HDL-콜레스테롤의 함량을 증가시켜 동맥경화성 병변에 대해 예방효과를 가진다는 보고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동맥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은 그 섭취 수준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